



챔스 새나이 박지성

“위기의 맨유를 구하라”

내일 새벽 갈라티 상대 C조 3차전
3위 떨어진 팀에 첫 승 선물 특망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서 뛰는 박지성이 2011~201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유의 첫 승리를 이끌지 주목되고 있다.

맨유는 19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오렐를 갈라티(무마니아)를 상대로 UEFA 챔피언스리그 C조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맨유는 1, 2차전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쳐 C조 3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조 최하위인 오렐를 갈라티를 상대로 승점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맨유는 또 불과 나흘 뒤인 23일 홈에서 정규리그 선두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간발의 차이로 정규리그 2위를 달리는 맨유가 맨시티를 끌어내리려면 안방에서 치르는 이번 맞대결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맨유로서는 전력을 돌로 나눠 운용하면서 챔피언스리그와 정규리그 두 경기를 모두 잡아야 하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성은 정규리그보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공격수이면서도 수비적인 역할의 비중이 큰 박지성을 강팀을 상대하거나 원정 경기 등의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때 주로 기용해 왔다.

이번에도 양팀 모두 공격력을 총동원해 치열한 선제공격 싸움을 벌일 맨시티전보다는 원정에서 차분히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오렐를 갈라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박지성의 경험과 노련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각적인 전력에서 오렐를 갈라티가 맨유보다 열세지만 1, 2차전에서처럼 맨유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로 9번째로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밟은 박지성의 경험과 노련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아스널에서 뛰는 박주영이 고대하던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도 관심사지만 20일 예정된 마르세유와의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적팀의 조건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내걸고 아스널 유니폼을 입은 박주영은 1차전 때는 경기 당일 야야 워크퍼밋(노동허가증)이 나와 기회를 놓쳤고 홈에서 치른 올림피아코스와의 2차전에서도 벤치를 지켰다. 스위스리그 바젤에서 뛰는 박주호는 19일 새벽 벵피카와의 조별리그 C조 3차전 홈 경기를 준비한다. /연합뉴스

손흥민 시즌 3호골

함부르크 승리 이끌어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손흥민(함부르크)이 시즌 3호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16일(한국시간) 바데노바 슈타디온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와의 원정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전반 헤딩 슈트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지난 11일 아랍에미리트와의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 출전해 큰 활약을 하지 못한 손흥민은 독일과 한국을 오가는 장거리 여행에서 쌓인 피로가 완전히 풀렸음을 알렸다.

함부르크는 프라이부르크를 2-1로 꺾고 시즌 2승(1무6패)을 기록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프라이부르크 골문으로 강력한 압박 중거리슛을 날렸던 손흥민은 10여분 뒤 찾아온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반 12분 오른쪽 코너에서 올라온 크로스



를 팀 동료 제프리 브루마가 머리로 받아 넣었지만 프라이부르크 골키퍼 올리버 바우만이 간신히 쳐냈다. 하지만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흥민이 재치있게 다시 머리로 받아넣어 1-0을 만들었다. 이번 시즌 7경기에 출

전해 세번째로 떠뜨린 골이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수비수 마르셀 안센과 교체돼 벤치로 나왔다. /연합뉴스



세인트루이스 NL 우승 월드시리즈 진출 텍사스와 맞대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5년 만에 내셔널리그(NL) 정상에 올라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세인트루이스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에서 밀워키 브루어스를 12-6으로 물리쳤다.

세인트루이스는 7전4승제 챔피언십시리즈에서 4승2패를 올려 2006년 이후 5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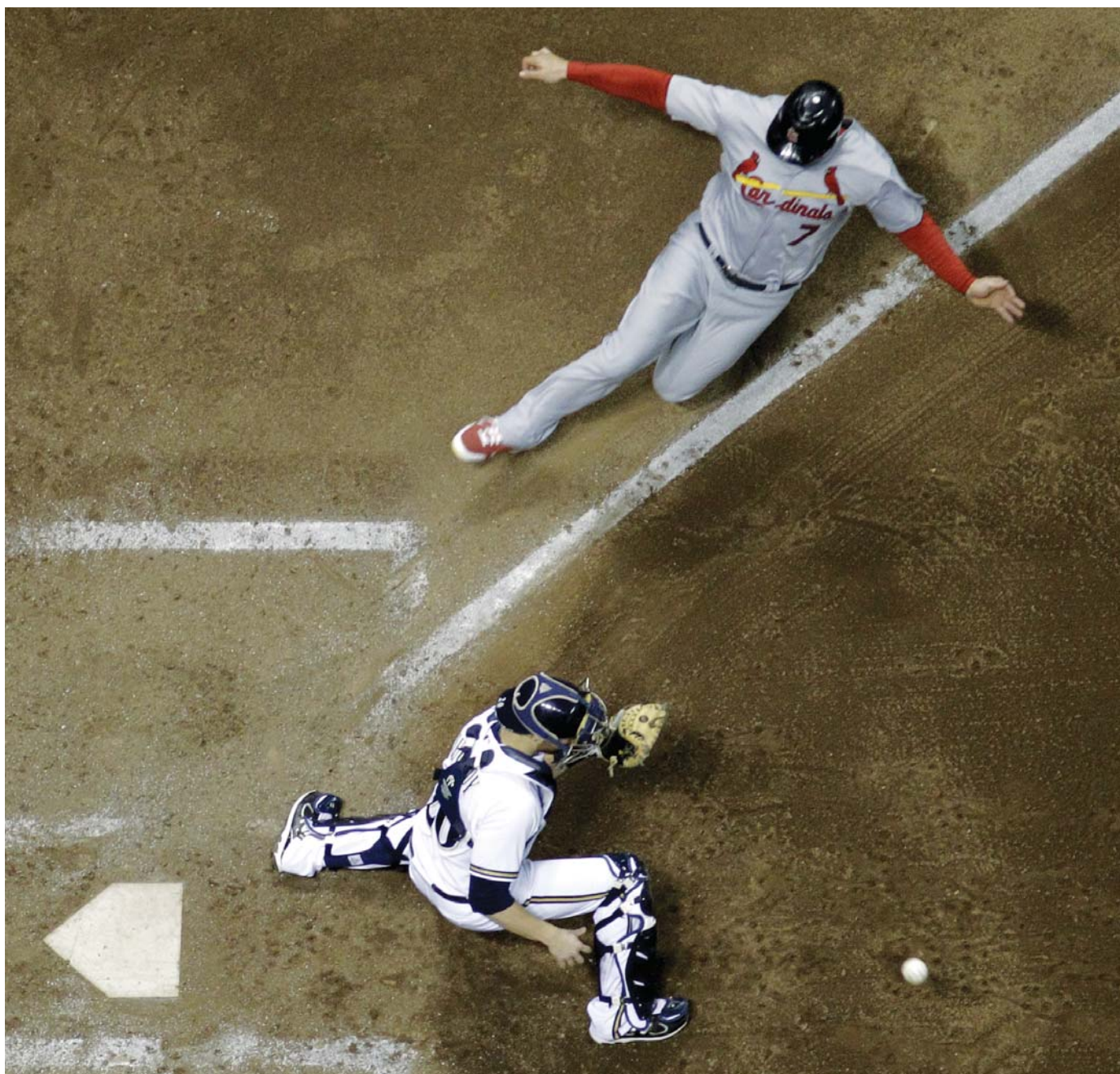
당시 NL 중부지구 1위에 올랐던 세인트루이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뉴욕 메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차례로 물리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디트로이트를 4승2패로 꺾고 아메리칸리그(AL) 정상에 오른 텍사스 레인저스가 세인트루이스를 기다리고 있다. 두 팀은 20일부터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한다.

세인트루이스와 텍사스 모두 각 리그에서 팀 타율 1위를 달리는 등 투수력보다는 화려한 타력을 뽐낸 터라 시원한 난타전이 기대된다.

이날도 세인트루이스는 홈런 3개를 포함해 장단 14안타를 몰아치며 월드시리즈 진출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누가 빠를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맷 홀리데이(7번)가 17일 미국 밀워키 밀러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에서 3회 홈으로 슬라이딩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승 하고도 비난 받은 선동열 ‘스몰 야구’

2006시즌 개막 직전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펼쳐진 첫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의 열기는 2006시즌 페넌트레이스로 이어졌다.

2006시즌 디펜딩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는 큰 전력 보강 없이 또 한번 ‘선동열 식 지키는 야구’로 2연패 포함 V4를 달성했다.

삼성의 선발 요원으로서는 10승 이상을 올린 투수는 하리칼라(12승)·브라운(11승)·전병호(10승) 세 명 뿐이었다. 2005시즌에 이어 이처럼 허약한 선발진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2년차 ‘돌부처’ 오승환의 눈부신 ‘소방 활동’에 있었다.

오승환의 시즌성적은 63경기출장 4승 4패47세이브에 방어율 1.59였다. 오승환이 한 판 한 판 쌓아올린 47세이브는 시즌 최다 세이브 신기록이었고, 덩으로 최연소 및 최소경기 40세이브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오승환이 등판하기 전에 맞춤형 척추병으로 투입된 요원은 사이드암 권오준과 사우스 포 오상민이었다. 권오준은 32홀드, 오상민은 16홀드를 기록해 오승환의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삼성은 팀타율 0.255, 팀홈런 73개의 중하위권 성적임에도 팀방어율 3.33으로 1위를 고수해 ‘투고타저’의 극명한 색깔을 가지고 우승을 일궈낸 것이다.

삼성 타자 중 규정타석을 채우고 3할을 친 타자는 양준혁(0.303)이 유일했다. 삼성이 잘했다는 평가와 상대적으로 나머지 팀이 더 못해 삼성이 어부지리를 했다는 평가로 양분된 페넌트레이스에

서는 삼성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따라붙는 현대를 뿌리치고 1위로 마감했다. 준플레이오프전에서는 4위 한화가 3위 KIA를 2승1패로 꺾고 플레이오프전에 진출, 2위 현대마저 3승1패로 제압하고 한국시리즈에 올랐다.

2006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서는 삼성이 배영수-권오준-오승환의 무실점 계투로 괴물 신인 류현진을 잡고 4-0의 완승을 거두었다. 2차전은 삼성 브라운이 4회 4실점으로 자멸하며 2-6으로 패했다.

3차전에서는 연장 12회초 한국시리즈 MVP 박진만이 특급 마무리 구대성에게 결승타를 쳐내며 삼성의 4-3 승리로 끝났다. 4차전 역시 삼성이 연장 10회초 김재걸의 적시타로 4-2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백미였던 한국시리즈 5차전은 3연속 경기 연장전으로 치러졌고 연장 15회 이닝 제한 1-1 무승부가 되었는데, 삼성은 무려 9명의 투수를 투입하는 강수를 두었다. 그리고 시리즈 고별전이 된 6차전서는 삼성의 하리칼라-오승환의 방패가 김태균의 홈런이라는 창을 잘 막아내며 3-2의 신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삼성이 우승을 차지했지만 다수의 팬들은 ‘스몰 야구’에 식상해하기 시작했고, 훗날 선동열 감독은 그 멍에를 쓰고 ‘팬’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김재요

〈조선이대교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Llumar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족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엑세서리 일체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리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상 평크 무상점검
- 타이어 앞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역서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Since 1901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 자동차 거리 홍진거리(20번길)